

## Evaluation of voice parameters following supracricoid laryngectomy

김민식, 조승호, 박영학, 선동일\*, 김형태, 유우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상윤상후두부분적출술은 과거 후두전적출술을 실시하던 환자들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만족할만한 중양학적 결과 및 후두의 생리적인 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 점차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이 술식후의 기능변화나 보상기전 등에 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상인과 비교하여 음성지표들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이 수술은 원발병소의 위치에 따라 CHEP, CHP 방법으로 재건할 수 있으며 중양의 범위에 따라 일측의 피열연골과 윤상연골의 앞부분을 제거하는 extended procedure 등이 사용되고 있다.

저자들은 상윤상후두적출술을 시행한 21명의 환자에서 CSL(Kay Elemetric Corp, USA)을 이용하여 음성지표를 분석하고 수술방법에 따른 음성지표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간의 음성지표의 변화는 있었으나, CHP 군과 CHEP 군을 비교하여 볼 때 CHP 군에서 H/N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술방법에 따른 기타 음성지표의 변화는 없었다( $p=0.012$ ). 상윤상후두부분적출술을 실시한 환자중 extended procedure를 실시한 경우에서도 수술방법에 따른 음성지표의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윤상후두부분적출술후 음성지표는 정상인과 차이는 있었으나 수술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음성보존이 가능하였다.